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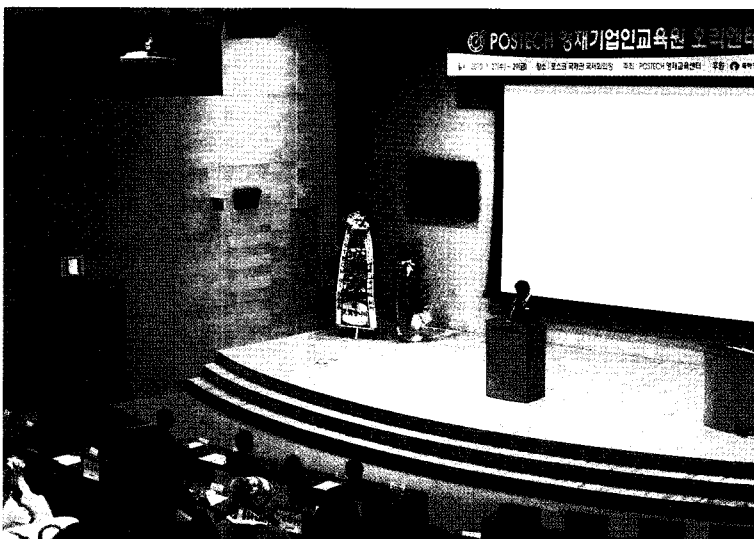
01 2010년 시무식, 새로운 출발 다짐



우리회는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말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기관으로의 도약”을 당부했다.

이어, 최종협 상근부회장과 박봉석 인재개발본부장, 강성용 사업지원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배식을 하며 따뜻한 점심을 함께 했다.

02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 육성 첫 발 내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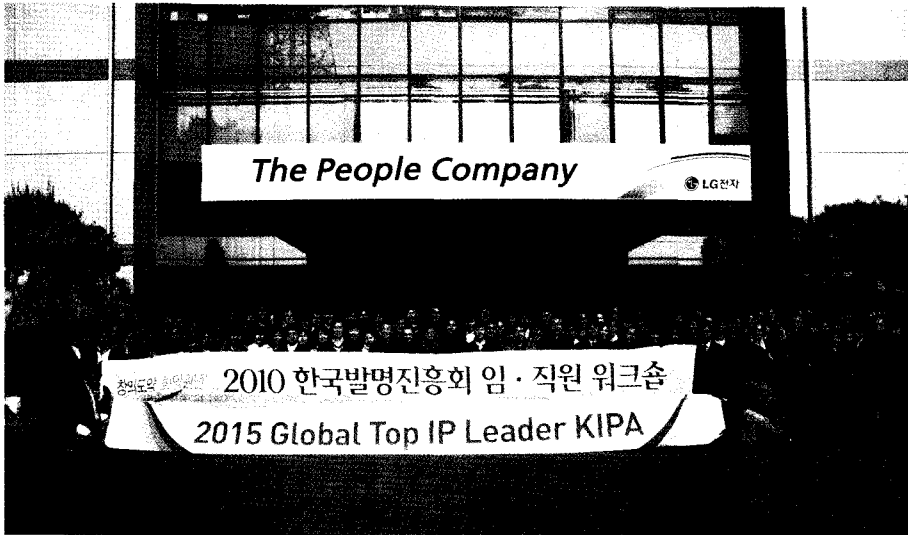
특허청과 우리회는 KAIST·POSTECH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기반 영재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은 MS의 빌 게이츠, 구글(Google)을 공동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와 같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를 일컫는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KAIST와 POSTECH에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며, POSTECH 교육원 개소식은 지난 1월 27일 POSTECH에서 개최되었다.

03 우리회 임직원 워크숍 성공적 개최

지식재산기반의 초일류 전문기관으로의 성장 다짐



우리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LG전자 연수원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과 노사간 상생협력의 장을 통한 소통기반 조성, 전사 비전과 미션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내부성과 관리제도의 정착,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고도화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경영선진화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지회를 포함한 우리회 임직원 전원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2010년도 전략과제 발굴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분임별 토의가 있었고, 특강시간에는 3P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이사가 '성공을 바인딩하라' 라는 주제로 지식근로자들의 라이프 플래너에 있어 절대적 요소인 시간·목표·기록·지식관리를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인의 활동 패턴을 조직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선포를 통해 우리회 임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원동력으로 창조경영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기관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기반의 초일류 전문기관으로의 성장을 다짐하였다.